

1. [논문]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3학년 : 김회진(팀장), 고영실

2학년 : 박수연, 조경서

1학년 : 민병욱, 이하연, 진하영, 김혜림

지도교수 : 김정화 교수

# 목 차

요약문 .....	
<b>I. 서론 .....</b>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b>II. 이론적 배경 .....</b>	
제1절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코로나19 일상 속 대학생이 느끼는 우울과 사회적 고립감	
<b>III. 연구내용 및 방법 .....</b>	
제1절 연구내용	
제2절 조사대상	
제3절 조사내용 및 측정 도구	
제4절 분석방법	
<b>IV. 분석결과 .....</b>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코로나19 이전 여가활동	
제3절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	
제4절 대학생의 우울감(PHQ-9)	
제5절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제6절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제7절 수업방식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제8절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방법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제9절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b>V. 결론 .....</b>	
제1절 결론 및 제언	
제2절 의의와 한계	
<b>참고문헌 .....</b>	
<b>부록 .....</b>	
<b>설문지</b>	

- <표-1 일반적 특징>
- <표-2 대학의 수업방식>
- <표-3 코로나19 이전 여가활동>
- <표-4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
- <표-5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 <표-6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 <표-7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 <표-8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 <표-9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 <표-10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 <표-11 책을 보거나 TV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 <표-12 다른 사람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 <표-13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 <표-14 나에겐 친한 친구가 없다.>
- <표-14 우울감 구간별 통계>
- <표-15 나에겐 친한 친구가 없다.>
- <표-16 코로나 전/후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대략적인 횟수가 많이 줄었다.>
- <표-17 다른 사람들은 나와 관계에서 나를 이용 한다.>
- <표-18 나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 <표-19 나에겐 이성 친구(여자/남자)가 없다.>
- <표-20 나는 이성 친구(여자/남자)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 <표-21 내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 <표-22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부담스러워한다.>
- <표-23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혼자서 해결한다.>
- <표-2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 <표-25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눌 만큼 친한 사람이 없다.>
- <표-26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 <표-27 나에게는 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
- <표-28 나는 이해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 <표-29 내 삶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 <표-30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 <표-31 나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낸다.>
- <표-32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 <표-33 나는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가 아니다.>
- <표-34 나는 내가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는다.>
- <표-35 사회적 고립감 평균>
- <표-36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 <표-37 수업방식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 <표-38 코로나19 이전 여가활동 방법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 <표-39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 방법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 <표-40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 요약문

## I. 서론

본 연구는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복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에 관하여 대학생의 우울감(PHQ-9),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검사를 통해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복지대학교 2021년 기준 재학생의 수는 869명 중 구글 설문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첨부하여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108명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도구로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7문항, 대학생의 우울감(PHQ-9) 9문항,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검사 2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코로나19 일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의 구조적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에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연구생들은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모색하고 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생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재난이라는 사건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인간의 일상에 변화된 행동 양식과 충격을 준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 사회는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경험이 사람들의 우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현시점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우울감을 단순히 '우울'이라 일컫기보다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우울감(blue)이 결합한 '코로나 우울(Corona blue, 이하 코로나 블루)'이라 불리고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일어난 생활 속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20).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고립감이 코로나 블루를 불러일으키는 대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에 주목했던 연구는 에릭슨(Erikson, 1968)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지목한 점을 언급하였다(김재희·박은규, 2016). 에릭슨에 따르면 성인 초기에는 친밀감 혹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여가활동의 변화, 대학생의 우울감 및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이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일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였다.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측정 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지의 내용은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며 변하는 감정을 알아보기 위한 문헌 및 기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 한국복지대학교에 재학생 대상으로 수업방식, 코로나19 이전 이후 여가활동, 대학생의 우울감(PHQ-9) 및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코로나19 이전 이후 여가활동 7문항, 대학생의 우울감(PHQ-9) 9문항,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20문항이며 조사 대상은 총 108명이며,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설문지 배부 및 회수였다.

설문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분석, 평균차이 검증을 수행하였다.

### IV. 분석결과

분석은 SPSS 26.0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재학생들이 응답해주었다.

-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성별은 여자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학년은 4학년으로 알 수 있다.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전공은 인문사회계열로 알 수 있다.
-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은 평균적으로 높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다.
- 수업방식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수업방식으로 는 대면+비대면으로 파악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방법이 차이가 났다. 코로나19 전의 여가활동은 영상 시청 34%, 친구 만나기 30.6% 순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후의 여가활동은 영상시청이 69.4%로 증가하였고 친구 만나기는 4.6%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방법이 대학생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평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 대학생의 우울감과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에서는 심각한 우울감이 높은 경우 사회적 고립감과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과 연구생들은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이 차이가 나며, 대학생의 높은 우울감이 사회적 고립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연구생들은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학생들을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이 느끼는 우울감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자신의 취미를 찾아 일상에서 우울감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 전/후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사회적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본 연구는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과 연구생들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기 모습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버티며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1. 서론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이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나 코로나19의 통제는 불가능했고, 결국 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WHO, 2020). 코로나19의 확산은 코로나19 출현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년이 되어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2021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20개국에 감염되었고, 약 480만 명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총확진자는 327,976명으로 최근에도 하루 평균 2,000~3,000명의 확진자가 보고 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우울 평균 점수는 5.0점으로 2021년 3월 조사 결과(5.7점)보다 줄었다. 우울 위험군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 줄어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우울 평균 점수 2.1점, 우울 위험군 비율 3.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특히 20대 우울 평균 점수는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우울 평균 점수 5.8점으로 3월 조사 4.6점보다 1.2점이 올랐다. 전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이는 20대 청년층이 코로나19 여파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우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우울을 불러일으키는 대표 원인이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고립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 사태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코로나 우울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활 속 불안감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과의 구조적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에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연구생들은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한국복지대학교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과 연관된 여가활동 및 우울이 어느 수준이며, 여가활동 및 우울감이 사회적 고립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파악을 한다.

첫째, 현재 국립한국복지대학교의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수업방식을 파악한다.

둘째, 현재 국립한국복지대학교의 재학생 중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의 변화를 파악한다.

셋째, 현재 국립한국복지대학교의 재학생 중 코로나19 이후(2021년 9월 1일 ~ 현재) 대학생이 느끼는 우울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본다.

넷째, 현재 국립한국복지대학교의 재학생 중 코로나19 이후(2021년 9월 1일 ~ 현재)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본다.

다섯째, 현재 국립한국복지대학교의 재학생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감과 일반적 특성, 여가활동, 우울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제1절 대학생이 경험하는 코로나19 일상

#### 1. 코로나19의 개념

##### 1) 코로나19 정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 2) 코로나19의 일상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란 매일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었던 평상시의 상태가 달라짐을 뜻한다. 즉 의식주 활동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맺기, 일을 포함한 사회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등 삶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일반적인 것들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생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재난이라는 사건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인간의 일상에 변화된 행동 양식과 충격을 준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 사회는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변화들을 구분 짓자면 환경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환경이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이나 상황 및 물리적 공간을 말하며,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환경적 변화라 부른다. 그리고 정서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을 뜻하는 것으로 기분이나 감정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정서적 변화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로 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교육과 돌봄의 정지, 재택근무, 외출 자제, 여가 생활 결핍, 재택근무, 유연근무제와 같은 조건이나 상황이 달라져서 발생하게 되는 부분을 환경적 변화라 하겠다. 반면 가사노동의 증가로 인한 갈등, 부부 갈등, 자녀 갈등, 아동학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걱정 등 바뀐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감정의 변화들은 정서적 변화로 볼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정서적 및 환경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런 변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 모습은 달라졌다.

## 2. 코로나19로 변화된 대학생의 건강생활

### 1) 코로나19의 대학 생활

2020년 3월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발표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대면 수업을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실시간 화상교육 등의 동시적 수업 및 비동시적 수업”(교육부, 2020)으로 정의함에 따라 대학은 2020년 1학기부터 실시간과 비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였다(김상미, 2020).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어려움은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대학생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수업과 경제적 어려움, 감염의 불안감,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은 증가되고, 학교 내 대인관계의 단절은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정보공유의 고립을 통한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였다(노성동, 2020). 특히 신입생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통해 강좌를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강진호, 손성민, 한승태, 2020).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로 인해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늘고, 다른 학교로 이동을 위한 공부 또는 공무원 시험 등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도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지 못함에 따라 우울감 및 불안, 무기력, 분노, 혼란 등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사고는 휴학 또는 자퇴로 이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코로나19 일상 속 대학생이 느끼는 우울과 사회적 고립감

### 1.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우울감

‘우울(depression)’은 개인의 지각 및 사고, 태도에서부터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로, 단순한 슬픔에서부터 상실감, 무력감, 주의 집중의 어려움을 포함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Beck & Beck, 1972). 이렇듯 우울은 병리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로, 부정적 사고 및 주의 집중 문제, 욕구 상실, 수면 장애 등 현실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권석만, 2003).

우울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는데, 인구통계학적 요인, 대처방식 및 완벽주의 성향(하정희, 안성희, 2008),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있다(김현정, 손정락, 2006). 대개 우울은 부정적 생활사건에 의해 유발되는데, 특히 생활속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주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Stewart et al. 1999).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경험은 심각한 우울 증상을 불러일으키며,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태는 자살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Furr, Westefeld, McConnell, & Jenkins, 2001; 김현순, 김병석, 2008; 박재연, 김정기, 2014).

따라서 현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경험이 사람들의 우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현시점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우울감을 단순히 ‘우울’이라 일컫기보다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우울감(blue)이 결합한 ‘코로나 우울(Corona blue, 이하 코로나 블루)’이라 불리고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일어난 생활 속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20).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생활 반경의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울을 호소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고, 특히 성인 진입기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우울 보고가 높게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국가트라우마센터, 2020; 보건복지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고립감이 코로나 블루를 불러일으키는 대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코로나 블루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여부와 그에 따른 반응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57.6%가 코로나 블루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코로나 블루의 의미를 설명한 후 경험 유무를 질문하자 무려 전체 응답자의 약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 2.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2020년에 발표된 여러 선행연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였다(박용천 외, 2020; Hamza et al., 2020; Usher et al., 2020; Wu B, 2020). 타운젠트(Townsend, 1955)가 사회적 고립감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노년층이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언급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을 사회적 연결망이나 의미 있는 집단 구성원과의 접촉 혹은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한다(Smith, Gavey, Riddell, Kontari, & Victor, 2020).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고립감이 단순한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애착, 사회적 통합, 가치의 확신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함을 의미한다(Weiss, 1973). 또 다른 선행연구는 사회적 고립감을 준거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발생하는 고립의 감정으로 보았으며(김태형, 2014), 주관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정서적 차원과 실제 고립되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차원을 포함한다는 시각도 있다(Vincenzi & Grabosky, 1987). 즉, 자신이 원하는 만큼 친밀감의 수준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deJong-Gierveld, 1987). 과거에는 사회학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감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주영주·유나연·설현남, 2012), 최근에는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진다(김춘남·박승민·박승희·김서인, 2018). 연구 대상 역시 노년층(조재희·조해영, 2017), 결혼이주여성(정혜원, 2020), 고독사 위험군으로 지목된 중·장년 남성(박선희·최영화, 2020)뿐만 아니라 청년(박민선·정순돌, 2020)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에 주목한 선행연구는(최윤정, 2012) 성인 초기에도 다양한 조건에 의해 사회적 고립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에 주목했던 연구는 에릭슨(Erikson, 1968)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지목한 점을 언급하였다(김재희·박은규, 2016). 에릭슨에 따르면 성인 초기에는 친밀감 혹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인 초기에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헌신이나 깊은 감정을 공유하는 친밀함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비거스트(Havighurst, 1972) 역시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제시하였다. 정혜원(2020)에 따르면 준거 집단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되거나 사회적 관계가 중단되는 등의 환경요인도 사회적 고립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대학이라는 조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사회적 관계가 중단된다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제1절 연구내용

측정 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지의 내용은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며 변하는 감정을 알아보기 위한 문헌 및 기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 한국복지대학교에 재학생 대상으로 수업방식,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대학생의 우울감(PHQ-9),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7문항, 대학생의 우울감(PHQ-9) 9문항,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20문항이며 조사 대상은 총 108명이며,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설문지 배부 및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분석, 평균차이 검증을 수행하였다.

#### 제2절 조사대상

본 연구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을 협조 요청하였고, 연구생들은 2021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설문에 응한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설문 양식을 작성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869명 중 108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 제3절 조사내용 및 측정 도구

일반적 특징으로는 성별, 학과, 수업방식 문항을 작성하고 알아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대학생의 우울감(PHQ-9) 및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설문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코로나19 이전 이후 대학생들이 여가 생활 중 가장 큰 비중, 가장 적은 비중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대학생들의 우울 및 사회적 고립감을 알아보았다.

## 제4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문항별 빈도수 및 비율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분석, 평균차이 검증을 사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평택에 있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총 108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본 조사대상자는 남자 56명(51.9%), 여자가 52명(48.1%)이다. 학년으로 분류하면 1학년은 44명(40.7%), 2학년은 35명(32.4%), 3학년은 25명(23.1%) 4학년은 4명(3.8%)이다.

학과로 분류하면 사회복지과 27명(25%), 한국수어교원과 15명(13.9%), 유아특수보육과 11명(10.2%), 공공행정과 2명(1.9%), 장애상담심리과 13명(12%), 컴퓨터정보보안과 6명(5.6%), AI반도체융합과 8명(7.4%), 모던음악과 6명(5.6%), 귀금속보석공예과 8명(7.4%), 유니버설디자인과 12명(11%)이다.

수업방식으로는 대면 19명(17.6%), 비대면 65명(60.2%), 대면+비대면 24명(22.2%)이다.

<표-1 일반적 특징>

성별		빈도(명)	퍼센트(%)
남자		56	51.9
여자		52	48.1
전 체		108	100
학년		빈도(명)	퍼센트(%)
1		44	40.7
2		35	32.4
3		25	23.1
4		4	3.8
합 계		108	100
학과	사회복지과	27	25
	한국수어교원과	15	13.9
	유아특수보육과	11	10.2
	공공행정과	2	1.9
	장애상담심리과	13	12
	컴퓨터정보보안과	6	5.6
	시반도체융합과	8	7.4
	모던음악과	6	5.6
	귀금속보석공예과	8	7.4
	유니버설디자인과	12	11
	합 계	108	100

본 연구는 평택에 있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수업방식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총 108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대면 19명(17.6%), 비대면 65명(60.2%), 대면+비대면 24명(22.2%)으로 알 수 있다.

<표-2 대학의 수업방식>

수업방식	빈도(명)	퍼센트(%)
대면	19	17.6
비대면	65	60.2
대면+비대면	24	22.2
전 체	108	100

## 제2절 코로나19 이전 여가활동

빈도분석 결과 코로나19 이전 여가시간으로 보내는 활동으로는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37명(34.3%), 독서 0명(0%), 홈트레이닝(운동 등) 5명(4.6%), 컴퓨터 게임 17명(15.7%),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8명(7.4%), 친구 만나기 33명(30.6%), 기타 8명(7.4%)으로 알 수 있다.

<표-3 코로나19 이전 여가활동>

여가시간	빈도(명)	퍼센트(%)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37	34.3
독서	0	0
홈트레이닝(운동 등)	5	4.6
컴퓨터 게임	17	15.7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8	7.4
친구 만나기	33	30.6
기타	8	7.4
전 체	108	100

코로나19 이전 어떤 여가시간으로 주로 활동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제일 많이 한 여가시간으로는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37명(34.3%)이고, 제일 적은 여가시간으로는 독서 0명(0%)으로 알 수 있다.

### 제3절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

빈도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바뀐 여가시간으로 보내는 활동으로는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75명(69.4%), 독서 2명(1.9%), 홈트레이닝(운동 등) 6명(5.6%), 컴퓨터 게임 16명(14.8%),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1명(0.9%), 친구 만나기 5명(4.6%), 기타 3명(2.8%)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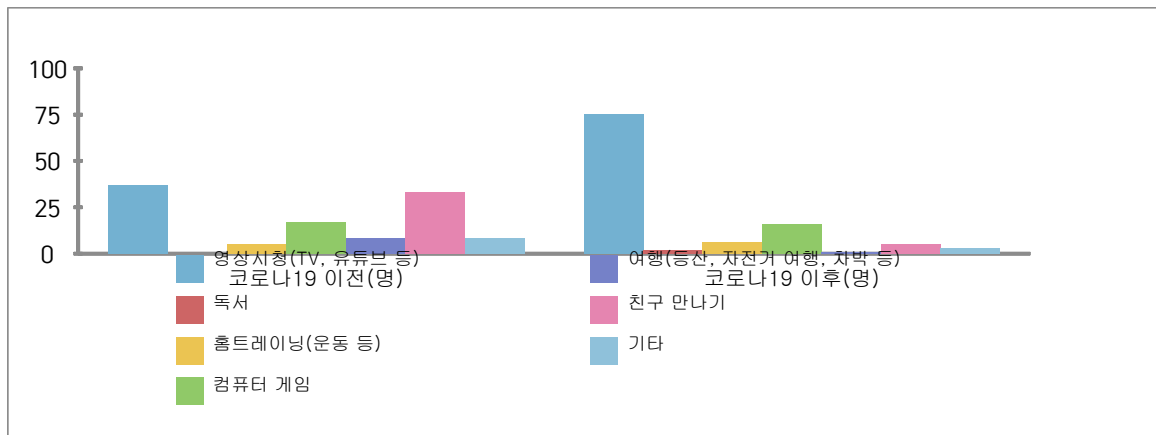
<표-4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

여가시간	빈도(명)	퍼센트(%)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75	69.4
독서	2	1.9
홈트레이닝(운동 등)	6	5.6
컴퓨터 게임	16	14.8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1	0.9
친구 만나기	5	4.6
기타	3	2.8
전 체	108	100

코로나19 이후 어떤 여가시간으로 주로 활동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제일 많이 한 여가시간으로는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75명(69.4%)이고, 제일 적은 여가시간으로는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1명 (0.9%)로 나타났다.

제일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코로나19 이전으로는 영상시청이 37명 (34.3%)에서 코로나19 이후 75명 (69.4%)'로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서 제일 낮게 나왔던 독서 0명(0%)에서 코로나19 이후는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1명 (0.9%)'로 바뀌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친구 만나기 33명 (30.6%)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5명 (4.6%)에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4절 대학생의 우울감(PHQ-9)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는데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없음’이 28(25.9%), ‘며칠 동안’이 41명(38%), ‘일주일 이상’이 30명(27.8%), ‘거의 매일’이 9명(8.3%)으로 알 수 있다.

<표-5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없음 (0)	28	25.9
며칠 동안 (1)	41	38
일주일 이상 (2)	30	27.8
거의 매일 (3)	9	8.3
전 체	108	100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없음’이 37(34.3%), ‘며칠 동안’이 36명(33.3%), ‘일주일 이상’이 28명(25.9%), ‘거의 매일’이 7명(6.5%)으로 알 수 있다.

<표-6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없음 (0)	37	34.3
며칠 동안 (1)	36	33.3
일주일 이상 (2)	28	25.9
거의 매일 (3)	7	6.5
전 체	108	100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없음'이 19(17.6%), '며칠 동안'이 27명(25%), '일주일 이상'이 38명(35.2%), '거의 매일'이 24명(22.2%)으로 알 수 있다.

<표-7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없음 (0)	19	17.6
며칠 동안 (1)	27	25
일주일 이상 (2)	38	35.2
거의 매일 (3)	24	22.2
전 체	108	100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없음'이 19(17.9%), '며칠 동안'이 38명(35.8%), '일주일 이상'이 37명(34.8%), '거의 매일'이 12명(11.4%)으로 알 수 있다.

<표-8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없음 (0)	19	17.9
며칠 동안 (1)	38	35.8
일주일 이상 (2)	37	34.9
거의 매일 (3)	12	11.4
전 체	106	100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없음'이 26(24.3%), '며칠 동안'이 35명(32.7%), '일주일 이상'이 28명(26.2%), '거의 매일'이 18명(16.8%)으로 알 수 있다.

<표-9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없음 (0)	26	24.3
며칠 동안 (1)	35	32.7
일주일 이상 (2)	28	26.2
거의 매일 (3)	18	16.8
전 체	107	100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없음'이 48(45.3%), '며칠 동안'이 31명(29.2%), '일주일 이상'이 23명(21.7%), '거의 매일'이 4명(3.8%)으로 알 수 있다.

<표-10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없음 (0)	48	45.3
며칠 동안 (1)	31	29.2
일주일 이상 (2)	23	21.7
거의 매일 (3)	4	3.8
전 체	106	100

책을 보거나 TV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없음'이 44(40.7%), '며칠 동안'이 35명(32.4%), '일주일 이상'이 22명(20.4%), '거의 매일'이 7명(6.5%)으로 알 수 있다.

<표-11 책을 보거나 TV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없음 (0)	44	40.7
며칠 동안 (1)	35	32.4
일주일 이상 (2)	22	20.4
거의 매일 (3)	7	6.5
전 체	108	100

다른 사람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없음'이 57명(52.8%), '며칠 동안'이 30명(27.8%), '일주일 이상'이 15명(13.9%), '거의 매일'이 6명(5.5%)으로 알 수 있다.

<표-12 다른 사람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없음 (0)	57	52.8
며칠 동안 (1)	30	27.8
일주일 이상 (2)	15	13.9
거의 매일 (3)	6	5.5
전 체	108	100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면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없음’이 76명(70.4%), ‘며칠 동안’이 15명(13.9%), ‘일주일 이상’이 11명(10.2%), ‘거의 매일’이 6명(5.5%)으로 알 수 있다.

<표-13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없음 (0)	76	70.4
며칠 동안 (1)	15	13.9
일주일 이상 (2)	11	10.2
거의 매일 (3)	6	5.5
전 체	108	100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독립변수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대학생의 우울감 결과의 내용으로는 재학생 108명 중 개인별 1~9번 문항 합산점수 값으로 0~4점(우울 증상 없음) 21명(19%), 5~9점(약한 우울) 42명(39%), 10~14점(중간 우울) 23명(22%), 15~19점(중간-심각한 우울) 15명(7%), 20~27점(심각한 우울) 7명(6%)으로 알 수 있다.

우울감 구간별 통계의 순서를 보면 약한 우울 42명(39%), 중간 우울 23명(22%), 우울 증상 없음 21명(19%), 중간-심각한 우울 15명(14%), 심각한 우울 7명(6%)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구간별 통계에서 평균 21.6점, 표준편차 12.9점으로 우울감을 겪는 한국복지대학교의 재학생들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14 우울감 구간별 통계>

변수		빈도(N)	비율(%)
우울감	우울증상 없음	21	19
	약한 우울	42	39
	중간 우울	23	22
	중간-심각한 우울	15	14
	심각한 우울	7	6
전체 우울감		평균 (21.6점)	표준편차 (12.9점)

## 제5절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나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는 데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71명(65.7%), ‘별로 그렇지 않다’ 21명(19.4%), 대체로 그렇다 11명(10.3%), ‘정말 그렇다’ 5명(4.6%)으로 알 수 있다.

<표-15 나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1	65.7
별로 그렇지 않다. (2)	21	19.4
대체로 그렇다. (3)	11	10.3
정말 그렇다. (4)	5	4.6
전 체	108	100

코로나 전/후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대략적인 횟수가 많이 줄었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17.6%), ‘별로 그렇지 않다’ 23명(21.3%), 대체로 그렇다 32명(29.6%), ‘정말 그렇다’ 34명(31.5%)으로 알 수 있다.

<표-16 코로나 전/후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대략적인 횟수가 많이 줄었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9	17.6
별로 그렇지 않다. (2)	23	21.3
대체로 그렇다. (3)	32	29.6
정말 그렇다. (4)	34	31.5
전 체	108	100

다른 사람들은 나와 관계에서 나를 이용한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57명(52.8%), '별로 그렇지 않다' 36명(33.3%), 대체로 그렇다 10명(9.3%), '정말 그렇다' 5명(4.6%)으로 알 수 있다.

<표-17 다른 사람들은 나와 관계에서 나를 이용한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7	52.8
별로 그렇지 않다. (2)	36	33.3
대체로 그렇다. (3)	10	9.3
정말 그렇다. (4)	5	4.6
전 체	108	100

나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56명(52.3%), '별로 그렇지 않다' 29명(27.1%), 대체로 그렇다 16명(15%), '정말 그렇다' 6명(5.6%)으로 알 수 있다.

<표-18 나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6	52.3
별로 그렇지 않다. (2)	29	27.1
대체로 그렇다. (3)	16	15
정말 그렇다. (4)	6	5.6
전 체	107	100

나에게 이성 친구(여자/남자)가 없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48명(44.4%), '별로 그렇지 않다' 28명(25.9%), 대체로 그렇다 15명(13.9%), '정말 그렇다' 17명(15.8%)으로 알 수 있다.

<표-19 나에게 이성 친구(여자/남자)가 없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8	44.4
별로 그렇지 않다. (2)	28	25.9
대체로 그렇다. (3)	15	13.9
정말 그렇다. (4)	17	15.8
전 체	108	100

나는 이성 친구(여자/남자)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43명(39.8%), '별로 그렇지 않다' 36명(33.3%), 대체로 그렇다 14명(13%), '정말 그렇다' 15명(13.9%)으로 알 수 있다.

<표-20 나는 이성 친구(여자/남자)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3	39.8
별로 그렇지 않다. (2)	36	33.3
대체로 그렇다. (3)	14	13
정말 그렇다. (4)	15	13.9
전 체	108	100

내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13명(12%), '별로 그렇지 않다' 10명(9.3%), 대체로 그렇다 44명(40.7%), '정말 그렇다' 41명(38%)으로 알 수 있다.

<표-21 내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12
별로 그렇지 않다. (2)	10	9.3
대체로 그렇다. (3)	44	40.7
정말 그렇다. (4)	41	38
전 체	108	100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부담스러워 한다는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51명(47.2%), '별로 그렇지 않다' 38명(35.2%), 대체로 그렇다 15명(13.9%), '정말 그렇다' 4명(3.7%)으로 알 수 있다.

<표-22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부담스러워한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1	47.2
별로 그렇지 않다. (2)	38	35.2
대체로 그렇다. (3)	15	13.9
정말 그렇다. (4)	4	3.7
전 체	108	100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혼자서 해결한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51명(47.7%), '별로 그렇지 않다' 37명(34.6%), 대체로 그렇다 11명(10.3%), '정말 그렇다' 8명(7.4%)으로 알 수 있다.

<표-23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혼자서 해결한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1	47.7
별로 그렇지 않다. (2)	37	34.6
대체로 그렇다. (3)	11	10.3
정말 그렇다. (4)	8	7.4
전 체	107	10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54명(50.9%), '별로 그렇지 않다' 29명(27.4%), 대체로 그렇다 17명(16%), '정말 그렇다' 6명(5.7%)으로 알 수 있다.

<표-2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4	50.9
별로 그렇지 않다. (2)	29	27.4
대체로 그렇다. (3)	17	16
정말 그렇다. (4)	6	5.7
전 체	106	100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눌 만큼 친한 사람이 없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62명(57.4%), '별로 그렇지 않다' 27명(25%), 대체로 그렇다 14명(13%), '정말 그렇다' 5명(4.6%)으로 알 수 있다.

<표-25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눌 만큼 친한 사람이 없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2	57.4
별로 그렇지 않다. (2)	27	25
대체로 그렇다. (3)	14	13
정말 그렇다. (4)	5	4.6
전 체	108	100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55명(50.9%), ‘별로 그렇지 않다’ 31명(28.7%), 대체로 그렇다 15명(13.9%), ‘정말 그렇다’ 7명(6.5%)으로 알 수 있다.

<표-26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5	50.9
별로 그렇지 않다. (2)	31	28.7
대체로 그렇다. (3)	15	13.9
정말 그렇다. (4)	7	6.5
전 체	108	100

나에게는 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64명(59.8%), ‘별로 그렇지 않다’ 26명(24.3%), 대체로 그렇다 15명(14%), ‘정말 그렇다’ 2명(1.9%)으로 알 수 있다.

<표-27 나에게는 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4	59.8
별로 그렇지 않다. (2)	26	24.3
대체로 그렇다. (3)	15	14
정말 그렇다. (4)	2	1.9
전 체	107	100

나는 이해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60명(55.6%), ‘별로 그렇지 않다’ 31명(28.7%), 대체로 그렇다 14명(13%), ‘정말 그렇다’ 3명(2.7%)으로 알 수 있다.

<표-28 나는 이해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0	55.6
별로 그렇지 않다. (2)	31	28.7
대체로 그렇다. (3)	14	13
정말 그렇다. (4)	3	2.7
전 체	108	100

내 삶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데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65명(60.7%), '별로 그렇지 않다' 26명(24.3%), 대체로 그렇다 13명(12.1%), '정말 그렇다' 3명(2.9%)으로 알 수 있다.

<표-29 내 삶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5	60.7
별로 그렇지 않다. (2)	26	24.3
대체로 그렇다. (3)	13	12.1
정말 그렇다. (4)	3	2.9
전 체	107	100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는데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58명(53.7%), '별로 그렇지 않다' 24명(22.2%), 대체로 그렇다 20명(18.5%), '정말 그렇다' 6명(5.6%)으로 알 수 있다.

<표-30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8	53.7
별로 그렇지 않다. (2)	24	22.2
대체로 그렇다. (3)	20	18.5
정말 그렇다. (4)	6	5.6
전 체	108	100

나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낸다는데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23명(21.5%), '별로 그렇지 않다' 28명(26.2%), 대체로 그렇다 40명(37.3%), '정말 그렇다' 16명(15%)으로 알 수 있다.

<표-31 나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낸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	21.5
별로 그렇지 않다. (2)	28	26.2
대체로 그렇다. (3)	40	37.3
정말 그렇다. (4)	16	15
전 체	107	100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38명(35.5%), ‘별로 그렇지 않다’ 36명(33.6%), 대체로 그렇다 24명(22.4%), ‘정말 그렇다’ 9명(8.5%)으로 알 수 있다.

<표-32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8	35.5
별로 그렇지 않다. (2)	36	33.6
대체로 그렇다. (3)	24	22.4
정말 그렇다. (4)	9	8.5
전 체	107	100

나는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가 아니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59명(54.6%), ‘별로 그렇지 않다’ 27명(25%), 대체로 그렇다 20명(18.5%), ‘정말 그렇다’ 2명(1.9%)으로 알 수 있다.

<표-33 나는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가 아니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9	54.6
별로 그렇지 않다. (2)	27	25
대체로 그렇다. (3)	20	18.5
정말 그렇다. (4)	2	1.9
전 체	108	100

나는 내가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는다에 대한 다중 응답 빈도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59명(54.6%), ‘별로 그렇지 않다’ 26명(24.1%), 대체로 그렇다 18명(16.7%), ‘정말 그렇다’ 5명(4.6%)으로 알 수 있다.

<표-34 나는 내가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는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9	54.6
별로 그렇지 않다. (2)	26	24.1
대체로 그렇다. (3)	18	16.7
정말 그렇다. (4)	5	4.6
전 체	108	100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결과의 내용으로는 평균 1.9, 표준편차 0.6, 최소값 1, 최대값 4, 왜도 0.7, 첨도 0.6으로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은 평균적으로 높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다.

<표-35 사회적 고립감 평균>

사회적 고립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1.9	0.6	1	4	0.7	0.6

## 제6절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독립변수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전공)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를 나타냈다.

- 성별의 관계는 남자 평균 1.82 표준편차는 0.78, 여자 평균 1.98, 표준편차 0.98로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성별은 여자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년의 관계는 1학년 평균 1.48, 표준편차 0.50, 2학년 평균 1.43, 표준편차 0.50, 3학년 평균 1.48 표준편차 0.51, 4학년 평균 2.00, 표준편차 0.00으로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학년은 4학년으로 알 수 있다.
- 전공의 관계는 인문사회계열 평균 1.91, 표준편차 0.89 공학예체능계열 평균 1.88, 표준편차 0.88로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전공은 인문사회계열로 알 수 있다.

<표-36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변수		사회적 고립감		T/F검증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1.82	0.78	0.93
	여자	1.98	0.98	
학년	1	1.48	0.50	1.57
	2	1.43	0.50	
	3	1.48	0.51	
	4	2.00	0.00	
전공	인문사회계열	1.91	0.89	0.27
	공학예체능계열	1.88	0.88	

## 제7절 수업방식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독립변수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수업방식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를 나타냈다.

비대면의 평균은 1.89, 표준편차는 0.89, 대면 평균 1.79, 표준편차는 1.08, 대면+비대면 평균 2.00, 표준편차 0.72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수업방식으로는 대면+비대면으로 알 수 있다.

<표-37 수업방식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변수		사회적 고립감		T/F검증
		평균	표준편차	
수업방식	비대면	1.89	0.89	0.3
	대면	1.79	1.08	
	대면+비대면	2.00	0.72	

## 제8절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방법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독립변수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방법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이전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평균 1.81, 표준편차 0.60, 홈트레이닝(운동 등) 평균 1.93, 표준편차 0.79, 컴퓨터 게임 평균 1.89, 표준편차 0.51,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평균 2.14, 표준편차 0.91, 친구 만나기 평균 1.84, 표준편차 0.50, 기타 평균 2.23, 표준편차 0.63으로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평균 1.93, 표준편차 0.62, 독서 평균 1.27, 표준편차 0.24, 홈트레이닝(운동 등) 평균 1.60, 표준편차 0.47, 컴퓨터 게임 평균 1.81, 표준편차 0.46,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평균 1.60, 친구 만나기 평균 1.95, 표준편차 0.26, 기타 평균 2.08, 표준편차 0.87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여가활동 기타,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 기타로 여가활동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표-38 코로나19 이전 여가활동 방법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코로나19 이전		사회적 고립감		T/F검증
		평균	표준편차	
여가활동 방법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1.81	0.60	0.908
	독서	-	-	
	홈트레이닝(운동 등)	1.93	0.79	
	컴퓨터 게임	1.89	0.51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2.14	0.91	
	친구 만나기	1.84	0.50	
	기타	2.23	0.63	

<표-39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 방법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감		T/F검증
		평균	표준편차	
여가활동 방법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1.93	0.62	0.774
	독서	1.27	0.24	
	홈트레이닝(운동 등)	1.60	0.47	
	컴퓨터 게임	1.81	0.46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1.60	-	
	친구 만나기	1.95	0.26	
	기타	2.08	0.87	

## 제9절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독립변수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우울 증상 없음 평균 1.37, 표준편차 0.33, 약한 우울 1.75, 표준편차 0.42, 중간 우울 평균 1.94, 표준편차 0.48, 중간-심각한 우울 평균 2.44, 표준편차 0.39, 심각한 우울 평균 2.96, 표준편차 0.70으로 심각한 우울이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결과를 알 수 있다.

<표-40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변수		사회적 고립감		T/F검증
		평균	표준편차	
우울감	우울증상 없음	1.37	0.33	22.74
	약한 우울	1.75	0.42	
	중간 우울	1.94	0.48	
	중간-심각한 우울	2.44	0.39	
	심각한 우울	2.96	0.70	

## V. 결론

### 제1절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사회복지과 연구생들은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대학생의 우울감 및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을 사회적 고립감의 평균을 비교하여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이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으로 우울감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방법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에서 코로나19 이전 여가활동 기타,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 기타로 여가활동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2021년 9월 1일 ~ 현재까지 대학생의 우울감(PHQ-9)에서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에서는 심각한 우울이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결과를 알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2021년 9월 1일 ~ 현재까지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검사에서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은 평균적으로 높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다.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연구생들은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학생들을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이 느끼는 우울감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자신의 취미를 찾아 일상에서 우울감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사람이 코로나 전/후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사회적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과 연구생들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기 모습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버티며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제2절 의의와 한계

현재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에 관한 연구 논문의 의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논문의 한계는 **첫 번째**, 양적 조사로만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양적 조사를 통해 여가활동,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만 조사하고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감에서 다양한 설문 조사가 있지만, 더 많은 설문 조사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 코로나19 전/후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설문 조사를 진행할 때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대학생들이 겪는 우울감,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참고문헌 및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전/후 대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을 연구하여 연구생들의 원하는 취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일상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의 과도한 일반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학생 869명을 조사하여 현재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 싶었지만 총 108명의 설문 조사 참여로 인해 전체적인 설문 조사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이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이 생겼다는 점에서 과도한 일반화를 적용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 [참고문헌]

- 한국판 대학생용 코로나 팬데믹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보도자료] 국민 40.7% "코로나19로 우울·불안 경험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코로나 19로 인한 전면 원격 수업 시기의 대학 신입생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및 분노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SNS 중독 경향성, 건강증진행위와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영향분석
-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19) (시사상식사전, pm 지식엔진연구소)
- 학술논문 : 「코로나-19 전후 대학생의 수업만족 및 학생상담 실태」 순천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임경희 2021
- 이해선, ZHOU NAN, 조재희 (2021).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의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 연구 : 학과소속감과 학업지속의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2), 5-40.
- 정예림. "한국판 대학생용 코로나 팬데믹 스트레스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COVID-19 Pandemic Stress Questionnaire for College Students; K-CPSQ)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 '캠퍼스 낭만' 무엇?... 온라인에 갇힌 20대 청년 우울감↑, 정부 '심리 방역' 사활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3848>

## 부록

### 1. 동의서

1-1. 설문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

- ① 예
- ② 아니오.

1-2. 나는 이 연구 설문지에 제공된 모든 개인정보가 연구자들 외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        )

- ① 예
- ② 아니오.

1-3. 나는 연구 설문지 작성과정 불편함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

- ① 예
- ② 아니오.

### 2. 인적 사항

#### 2-1.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2-2. 학년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④ 전공심화

#### 2-3. 학과

- ① 사회복지과
- ② 한국수어교원과
- ③ 유아특수보육과(장애유아보육과)
- ④ 공공행정과
- ⑤ 장애상담심리과(장애상담과)

- ⑥ 창의자율전공학부
- ⑦ 의료보장구과
- ⑧ 컴퓨터정보보안과
- ⑨ 유니버설건축과
- ⑩ SI반도체융합과
- ⑪ 모던음악과
- ⑫ 귀금속보석공예과
- ⑬ 장애인레저스포츠과
- ⑭ 유니버설디자인과

2-4. 2021학기 현재 진행 중인 수업방식

- ① 대면
- ② 비대면
- ③ 대면+비대면

3. 코로나19 이전 여가시간으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 ①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 ② 독서
- ③ 홈트레이닝(운동 등)
- ④ 컴퓨터 게임
- ⑤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 ⑥ 친구 만나기
- ⑦ 기타

4. 코로나19로 이후 바뀐 여가시간으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 ① 영상시청(TV, 유튜브 등)
- ② 독서
- ③ 홈트레이닝(운동 등)
- ④ 컴퓨터 게임
- ⑤ 여행(등산, 자전거 여행, 차박 등)
- ⑥ 친구 만나기
- ⑦ 기타

5. 대학생의 우울감(PHQ-9)

• 2021년 9월 1일~ 현재까지의 우울감 검사 (9문항)

		전혀 없음← → 거의 매일			
		①	②	③	④
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①	②	③	④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5.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책을 보거나 TV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8.	다른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 2021년 9월 1일~ 현재까지의 생활을 근거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20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다			
		①	②	③	④
1.	나에겐 친한 친구가 없다.	①	②	③	④
2.	코로나 전/후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대략적인 횟수가 많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들은 나와 의 관계에서 나를 이용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나에겐 이성 친구(여자/남자)가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이성 친구(여자/남자)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내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8.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부담스러워한다.	①	②	③	④
9.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혼자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눌 만큼 친한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12.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3.	나에게는 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이해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내 삶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낸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내가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